

동래읍성과 관아 건물 관련 엽서 자료

김 동 철*

| 목 차 |

- I. 머리말
- II. 동래읍성 관련 엽서
- III. 동래부 관아 건물 관련 엽서
- IV.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진 관아 건물과 비 관련 엽서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근간은 군현제다. 전국에는 330개 정도의 군현이 있었다. 군현에는 지방관(수령)이 파견되었다. 지방관은 종2품 부윤에서 종6품 현감까지 6등급으로 나뉜다. 1785년(정조 9) 편찬된 『대전통편』을 보면 당시 경상도에는 71개 군현이 있었다. 동래는 종3품 도호부사가 지방관으로 파견되는 도호부였다. 하지만 동래도호부는 남쪽 변방을 지키는 국방 요충지이므로, 정3품 당상관이 주로 파견되었다. 동래부는 1655년(효종 6)에 경주진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군대를 지

* 부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history@pu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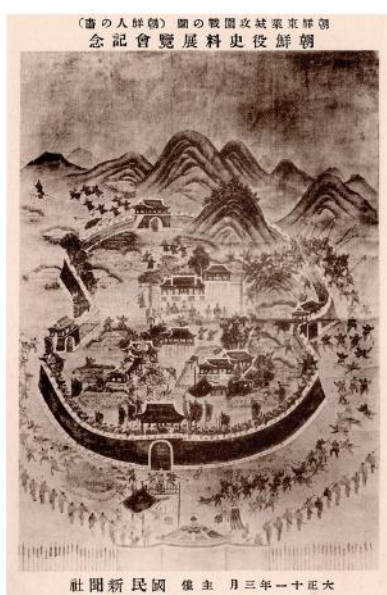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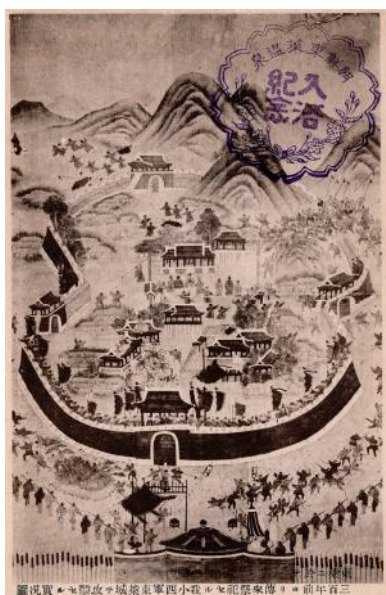
휘하는 ‘독진(獨鎭)’이 되었다. 이런 동래부의 위상은 동헌 바깥 대문(외대문)에 걸린 ‘동래독진대아문’이란 편액에 잘 나타난다. 동래부가 독진인 큰 관아란 뜻이다. 문 양쪽 기둥에는 ‘교린연향선위사’, ‘진변병마절제영’이란 현판이 걸려 있었다. 국방·외교의 중심지라는 동래부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동래부의 중심지는 읍성 안이다. 동래읍성은 1731년(영조 7)에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조선전기 읍성의 5배 이상이였다. 읍성 안에는 동헌·객사를 비롯한 많은 관아 건물, 민가, 시장 등이 있었다.¹⁾

지금까지 동래읍성 축성역, 읍성 안팎의 공간구조와 그 변화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이 글은 동래읍성과 성문, 읍성 안에 있는 동래부 관아 건물, 동래 금강원에 옮겨진 관아 건물 등과 관련된 근대 엽서에 대한 자료 소개다. 소개하는 엽서는 모두 19점이다. 1점을 제외한 18점은 필자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엽서다. 그래서 따로 소장자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필자가 소장하는 엽서는 그 동안 필자나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하면서 대부분 공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일괄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엽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엽서보다 전에 촬영된 사진 자료들도 적극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한국건축조사보고』(1904)와 프랑스 ‘파리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소장의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사진이다.

-
- 1)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동철, 『부산, 조선시대 국방·외교·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부산역사산책』, 부산광역시, 2020.
 - 2) 윤용출,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 21, 2007. 김기혁·김성희,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4, 2002. 송혜영, 『동래지역 읍·영·진성의 공간구조와 관아시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Ⅱ. 동래읍성 관련 엽서

조선시대 동래읍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동래부순절도』(변박, 1760)와 『동래부지도』(1872) 등을 들 수 있다. 동래부순절도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조선전기 동래읍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미지 자료는 없다.



<그림 1> 동래부순절도(변박, 1760) 엽서1 <그림 2> 동래부순절도(변박, 1760) 엽서2

<그림 1> 엽서는 동래부사 홍명환이 1760년에 동래부 화공 변박을 시켜 다시 그리게 한 동래부순절도다. 엽서에는 “동래에서 300년 전부터 전래 제사지내는 우리 고니시(小西)군이 동래성을 공격하는 실황도”라고 적혀 있다. 상단에는 ‘조선 동래온천 입욕 기념’ 스탬프(stamp)가 적혀 있다. 이 엽서는 동래 온천장에 위치한 온천전병(湯煎餅)의 원조

모리토모(森友)상점에서 발행한 임진왜란[엽서봉투 원문은 文祿征韓之役] 기념엽서이다.

<그림 2> 엽서도 변박의 동래부순절도다. 이 엽서는 일본 국민신문사가 1922년 3월 18~20일 국민신문사 별관에서 개최한 『근세일본국민사 조선역 사료 전람회 기념』 엽서로 발행한 것이다. 다른 임진왜란 사료와 함께 3매 1조로 발행되었다. 엽서에는 “조선 동래성 공위전(攻圍戰) 그림(조선인 필)”이라고 적혀 있다.

도쿠도미 소보(徳富蘇峰, 1863~1957)는 저널리스트·사상가·역사가로 유명하며, 특히 저작 『근세일본국민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918년 『국민신문』에 연재를 시작하여, 동년 『직전시대 전편(織田時代 前篇)』을 간행하였다. 『조선역(朝鮮役)』은 『직전시대』, 『풍신시대(豊臣時代)』에 이은 3번째 책 제목이다. 이 엽서는 그가 『조선역』을 집필하면서 수집한 사료 전시회 때 기념엽서로 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트 엽서에는 간단한 엽서 해제가 있다. 해제에서는 “1592년 4월, 아군[일본군]이 동래를 공격·포위할 때 그림으로, 그 당시 목격한 조선인이 그린 것. 현재 동래에 엄연히 존재한다. 당년의 수장(守將) 송상현(宋象賢)이 힘써 싸워 아군을 막는 상황은 『조선역 상권 (52) 부산 및 동래의 함락』에 상세하다”라고 하였다.

‘동래부순절도’를 일제시기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동래부성 함락도’라고 불렀다.³⁾ 그런데 1763년 통신사행(정사 조엄) 때 사행원은 8월 20일 동래에 도착하였다. 이 사행의 제술관 남옥(南玉)은 8월 22일 충렬사를 참배하였다. 이 날 일기에서 동래지역 유생들이 ‘송충렬정충장성함순신도(宋忠烈鄭忠壯城陷殉身圖)’를 구경하는 것을 적고 있다.⁴⁾

3)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吉川弘文館, 1987 復刊), 8~9쪽.

4) 남옥 지음·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日觀記)』, 소명출판, 2006, 196쪽.

남옥은 동래부순절도를 ‘송충렬성함순신도’, 부산진순절도를 ‘정충장성함순신도’라고 생각하였다.

동래읍성은 여러 차례 개축이 있었다. 조선후기 동래읍성의 기본틀을 형성한 것은 1731년 동래읍성이다.⁵⁾ 이 대대적인 동래읍성의 축성을 기념하기 위해 1735년(영조 11)에 세운 비가 ‘내주축성비(萊州築城碑)’다.

<그림 3> 엽서에는 “동래부축성비”라고 적혀 있다. 동래읍성 남문 밖에 있던 원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진 자료이다. 『동래부읍지』(1899) 『지도』나 『부산고지도』(동아대 박물관 소장, 19세기 후반)를 보면 남문 밖에 ‘축성비’가 표기되어 있다.⁶⁾



<그림 3> 내주축성비(1735) 엽서

<그림 3> 엽서와 비슷한 내주축성비 사진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5) 윤용출, 앞의 논문.

6) 김기현,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114~115쪽, 140~141쪽.

의 『한국건축조사보고』에도 수록되어 있다.⁷⁾ 세키노는 한국건축조사 명령을 받고 1902년 6월 27일(일본력) 도쿄를 출발하였다. 30일 고베에서 출발하여 7월 2일 새벽 부산에 도착했다.⁸⁾ 마산포, 군산 등지를 거쳐 7월 5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8월 30일 다시 부산에 도착, 9월 4일 부산을 출발, 5일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한국에는 62일간 머물렀다.⁹⁾ 2달 동안 한국의 건축을 조사하고 귀국한 후, 1904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연구하여 복명서로 제출한 책이 『한국건축조사보고』다.¹⁰⁾ 1902년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개월 남짓 개성, 경주, 경기, 서울, 동래, 경주 등을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사진을 담은 건축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경제국대학 공과대학에서 1904년 발간된 『한국건축조사보고』는 고적조사의 목적은 물론 유물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¹¹⁾

동래 지역의 같은 곳에 있었던 비(碑)이지만, 사진 이미지는 차이가 있다. 세키노의 책에 수록된 사진에는 엽서에 보이는 선정비 3기는 없다. 누구의 선정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엽서 사진이 책 사진보다는 역사적 정보를 좀더 제공해 주고 있다.

세키노는 이 책의 『조선시대』 <성곽> 부분에서 ‘동래성곽’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래읍성의 남문은 방형(사각형)의 웅성, 즉 되모양(柵形)을 이루고 2중으로 궤문을 설치하고 그 위에 누각을 설치하였다. 전문(앞문)은 세병문(洗兵門)이라 칭한다. 그 입구는 외면 홍예

7) 關野貞 저·강봉진 역, 『한국의 건축과 예술-복간 한국건축조사보고-』, 산업도서출판 공사, 1990, 424쪽 제331도 「동래축성비」. 『한국건축조사보고』 원문은 일본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에서 파일로 볼 수 있다.

8) 關野貞研究會 편,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117쪽.

9) 關野貞 저·강봉진 역, 앞의 책, 8쪽.

10) 關野貞 저·강봉진 역, 위의 책, 1쪽.

11) 김계원,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고미술-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사업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4, 2021, 13~14쪽.

(虹蜺)상을 이루고, 내면 인방석(引防石)을 사용한다. 그 누는 단층 팔작 지붕으로서 기묘한 공포 및 화반을 사용한다. 후문은 주조문(朱鳥門)이라 칭한다. 또 그 누각은 무우루(無憂樓)라 칭한다. 중층으로서 상층은 낮고 또 작아서 중고(重固)의 풍을 띠고, 권형이 매우 볼 만하다. 그 공포와 화반은 수법이 극히 성실하고 (하략)”¹²⁾라고 하였다.

세키노 책에는 제110도 「동래 남문 평면도」라 하여 남문의 2중구조를 알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¹³⁾ 남문의 안쪽 문이 주조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헌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1872년 군현지도인 「동래부지도」를 보면 동문 서문 암문 북문 인생문은 ‘웅성(甕城)’이라고 표기했지만, 남문만은 ‘익성(翼城)’이라 표기하고, 이중문으로 그려져 있다.¹⁴⁾



<그림 4> 동래읍성 남문 엽서(앞문 세병문, 뒷문 주조문)

<그림 4> 엽서에는 “조선 동래부 구성(舊城, 옛성) 세병문”이라고 적

12) 關野貞 저·강봉진 역, 앞의 책, 208~212쪽.

13) 關野貞 저·강봉진 역, 위의 책, 212쪽. 평면도의 주조문(朱鳥門)은 오기이다.

14) 김기혁, 앞의 책, 116~117쪽.

혀 있다. 동래읍성의 남문은 이중문 구조다. 앞문은 세병문(洗兵門), 뒷문은 주조문(朱鳥門)이다. 주조문에는 2층 누각이 있다. 누각 이름은 무우루(無憂樓)다. 뒷문은 주조문보다는 무우루로 더 알려져 있다.

세키노보다 9년 앞선, 1893년 7월 25일 일본을 출발, 부산에 도착하여 동래를 방문한 야즈 마사나가(矢津昌永)는 「성문은 ‘세병문’이라고 한다. 돌로써 쌓아 궁형(穹形, 활모양)을 이룬다. 위에는 누각을 두었다. ‘무우루’ 편액이 있다」¹⁵⁾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현재까지 세병문과 주조문이 동시에 보이는 사진 자료는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 엽서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동래읍성 남문을 복원하거나 모형을 만들 경우, 두 문의 거리,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엽서는 2007년 11월 20~22일 열린 「부산대 사학과 역사자료 전시회」에서 필자가 공개한 바 있었다.¹⁶⁾

1871년 『동래부읍지』 수록 지도나 1872년 군현지도인 『동래부지도』를 보면, 동래읍성에는 남문, 동문, 인생문, 북문, 암문, 서문의 6개 성문이 있다. 『동래부지』(1740) 「성곽」조를 보면 성문 문루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단 인생문 대신 인화문이 기재되어 있다. 성문과 문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후기 동래읍성 성문과 문루

	남문	동문	북문	서문	인생문	암문	비고
문루 이름	무루 (無憂樓)	지희루 (志喜樓)		심성루 (心成樓)	인화문 (人和門)	은일루 (隱一樓)	인화문은 1735년 건립. 인생문과 같은 문으로 봄.

* 김기혁·김성희, 앞의 논문, 321쪽 <표 2> 「성문의 명칭 및 규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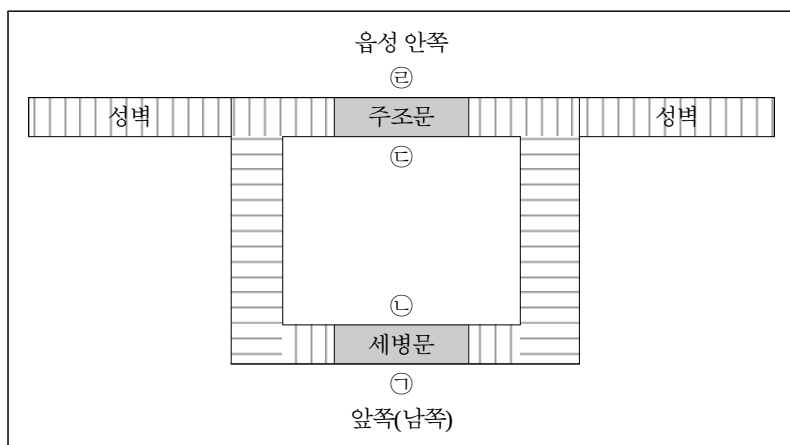
15)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丸善, 1894, 31쪽. 「동래부에서 관가를 방문하다」

16) 『부산일보』 2007년 11월 20일 「동래읍성 ‘남문’ 그렇게 서 있었구나」(이상현 기자).



<그림 5> 동래읍성 남문 세병문 엽서1

세병문과 주조문의 2중으로 된 동래읍성 남문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모습은 세키노도 책에서 그린 바 있다. 논지의 전개를 위해 문 안팎에 ㉠~㉣ 표시를 하였다.



<그림 5> 엽서는 세병문의 앞쪽 모습이다. 문에는 ‘세병문(洗兵門)’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¹⁷⁾ 세병문 뒤쪽에 무우루 지붕이 약간 보인다. 사진 양쪽을 보면 주조문으로 이어지는 각진 모퉁이를 볼 수 있다. 2중으로 된 남문의 입구 성벽은 세병문 바깥(㉠)-안(㉡)-주조문 바깥(㉢)-안(㉣)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엽서 사진을 보면 주조문의 바깥(㉢) 일부가 보인다. 거기에는 ‘호표(虎豹)’라고 쓴 글자가 보인다(엽서 안 동그라미 표시는 필자. <그림 8>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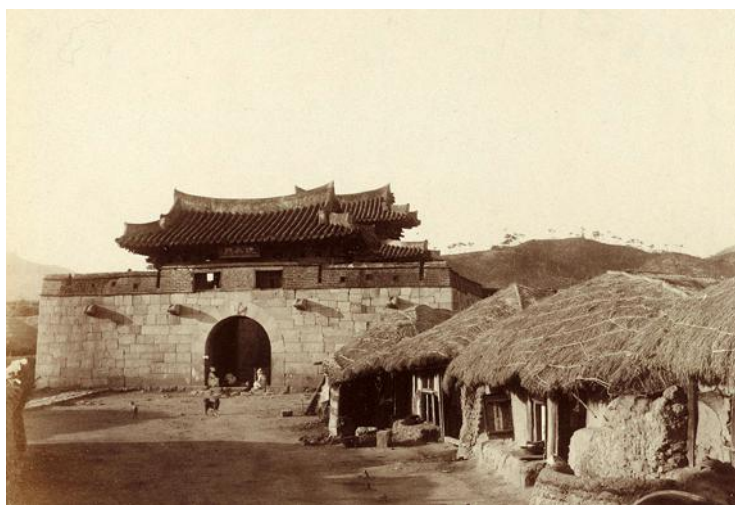
<그림 6> 엽서도 세병문의 앞쪽 모습이다. <그림 5> 엽서보다는 성벽 훼손이 조금 더 심하므로, <그림 5>보다는 후에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6> 엽서를 보면 세병문의 안쪽(㉡)이 아치형이 아니라 사각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림 9> 엽서에서 보면 더욱 확실하다.



<그림 6> 동래읍성 남문 세병문 엽서2

17) 關野貞 저·강봉진 역, 앞의 책, 213쪽 112도는 ‘동래 남문 세병문’ 사진이다. 엽서보다 성벽 상태가 양호하다. 엽서 사진은 1902년 7~9월(조사 시점) 이후에 찍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7>은 엽서가 아니고 사진이다. 앞서 언급한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세병문 사진이다. 이 사진은 세키노의 책에 수록된 세병문 사진보다 성벽 상태가 양호하다. 세키노가 조사한 1902년 7~9월보다 이전 사진이라고 생각한다.¹⁸⁾ 세병문 뒤쪽에 무우루가 약간 보인다. 이 사진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세병문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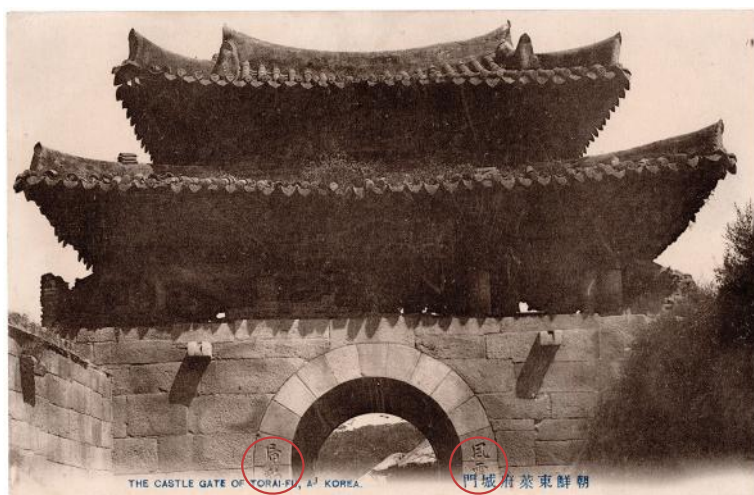


<그림 7> 세병문 사진(*CORÉE*에 수록)

<그림 8> 엽서는 주조문을 바깥쪽에서 찍은 사진이다. 엽서에는 “조선 동래부 성문”이라고 적혀 있다. <그림 5> 엽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문 출입구 왼쪽에는 ‘호표(虎豹)’, 오른쪽에는 ‘풍운(風雲)’이란 글자가 있다(엽서 안 동그라미 표시는 필자). 글자가 사진 아래쪽 끝부분에

18) 이 글에서 인용한 사진첩 *CORÉE* 사진은 부산대 교양교육원 양홍숙 교수가 제공한 것이다. 양홍숙 교수에 따르면 이 사진첩은 케클랭(Koechlin)이 1903년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부산 관련 사진은 2021년 6월 29일 부산초량왜관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김충진님(화가)이 소개·발표한 바 있다.

있기 때문에, 이 2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에 글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엽서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이 엽서는 주조문 양쪽에 적힌 ‘호표’, ‘풍운’ 4글자를 모두 보여주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다. 또한 바깥쪽(㉔)에서 주조문을 찍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진이다. 이 점에서 이 엽서의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림 8> 동래읍성 주조문(무우루) 엽서(바깥쪽)

<그림 9> 엽서는 주조문의 안쪽(㉓), 즉 읍성 안쪽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다. 엽서에는 “동래부 성문”이라고 적혀 있다. 2층 누각에는 ‘무우루(無憂樓)’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림 6> 엽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병문의 안쪽 출입구(㉒)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¹⁹⁾

19) 關野貞 저·강봉진 역, 위의 책, 213쪽 111도는 ‘동래 남문 무우루’ 사진이다. 엽서보다 약간 원경으로 찍은 것이다. 이 책 214쪽에는 113도 ‘동래 남문 주조문 공포’ 사진



<그림 9> 동래읍성 주조문(무우루) 엽서(안쪽)

즉 2중으로 된 동래읍성 남문의 출입구는 읍성 바깥쪽(㉠)에서 보면, 「아치-사각-아치-아치」 모양인 것을 알 수 있다. 무우루의 사진은 다른 사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남문에서 성안으로 이어지는 도로, 즉 무우루 안쪽 도로에 홍살문이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다.²⁰⁾

Ⅲ. 동래부 관아 건물 관련 엽서

동래부의 중심지인 읍성 안에는 많은 관아 건물, 일반 민가, 시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소·공간이 있었다. 읍성 안에 있는 관아 건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헌(東軒)과 객사(客舍)다. 동래부 동헌의 정청

도 수록되어 있다.

20)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변천 150년사』, 2016, 13쪽. 홍살문이 보이는 무우루 엽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은 충신당(忠信堂), 객사의 정청은 봉래관(蓬萊館)이다. 충신당과 봉래관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엽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10> 엽서에는 “동래 성내 대시”라고 적혀 있다. 성내 대시는 읍내장 장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장날 풍경과 함께 읍성 안 객사 주변의 복잡한 건물 배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큰 건물이 정원루(靖遠樓), 왼쪽 큰 건물이 식파루(息波樓)다.



<그림 10> 식파루와 정원루 엽서

동래읍성 안에는 관사·누정·청사·창고 등 다양한 기능의 건물이 있었다. 식파루는 객사 정문 누(樓)다. 『동래부지(읍지)』에 따르면, 6칸이며 객사 남쪽 있으며 1629년에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정원루는 12칸으로 원래는 객사 북쪽에 있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708년에 중건되었다.²¹⁾ 이때 중건되면서 객사 남쪽으로 옮겨졌다.²²⁾ 정원루

21) 『동래부지』(1740) 누정.

22) 『동래부읍지』(『여지도서』 수록, 1760년 경) 누정. 단 이 읍지에는 객사 동쪽에 있다

와 식파루는 객사 일곽에 속하는 누정이다.²³⁾ 정원루와 식파루의 실제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로는 이 엽서가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다. 이 엽서가 가지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1937년 발행된 『동래군지』(누대정각)를 보면 정원루는 당시 ‘동래군청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었다.²⁴⁾

<그림 11>은 식파루, <그림 12>는 식파루와 그 주변을 찍은 엽서다. <그림 11> 엽서에는 “동래명소 식파루”, <그림 12> 엽서에는 “동래 성내 식파루”라고 적혀 있다. 식파루를 지나면 안쪽에 삼문이 있는 것이 보인다. 식파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엽서가 다수 존재한다.



<그림 11> 식파루 엽서1



<그림 12> 식파루 엽서2

1869~1871년에 실시된 동래부 토목공사 관련 기록인 『성역급각공해중수기』를 보면, 토목공사 결과를 신건질(新建秩)과 중수질(重修秩)로 나누어 건물별로 칸수를 적었다. 동래부 관아에 속하는 대부분의 건물이 이때 다시 지어지거나 중수된 것을 알 수 있다.²⁵⁾ 중수질을 보면 망미루 6칸, 식파루 6칸이 중수되었다. 두 건축물은 이때 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23) 송혜영, 앞의 학위논문, 52~53쪽.

24) 문기주, 『동래군지』, 동래향교, 1937.

25) 윤용출, 「『성역급각공해중수기』 해제」, 『항도부산』 24, 2008.

최근(2014년)에 복원된 동래부 동헌 외대문의 솟막새에는 ‘경오 삼월(庚午 三月)’이란 글자가 적혀 있다.²⁶⁾ 이 경오년은 1870년(고종 7)이다. 망미루와 식파루의 중수, 여러 건물의 신축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해 기와를 구우면서 ‘경오 삼월’이란 시기를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3> 엽서에는 “남문시”라고만 되어 있으나, <그림 12> 엽서와 비교해 보면 식파루가 틀림 없다. 식파루는 물론 주변 건물도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식파루 2층은 전부 문으로 닫혀 있다.



<그림 13> 식파루 엽서3

바뀐 식파루 모습과 관련해서는 다음 신문기사가 주목된다.

『동래도서관개관』 동래군 동래면에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향교유림회 재산으로써, 당지 공립보통학교 정문 식파루를 수리하여, 지난 7일(去七日)부터 간이도서관을 개시하였는데, 종람은 무료이고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더라(동래).²⁷⁾

26) 솟막새 글자는 동래구청 문화관광과 이정형 계장이 알려준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즉 식파루는 1923년 8월 7일부터 동래군 간이도서관이 되었다. 간이 도서관은 식파루 2층을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 13> 엽서는 2층이 간이도서관으로 개조된 식파루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동래부 객사가 동래공립보통학교로 바뀌면서, 객사 정문인 식파루는 학교 정문으로 바뀌었다.²⁸⁾ 그리고 1923년에는 동래군 간이도서관으로 바뀐 것이다. 1937년에 간행된 『동래군지』(누대정각)를 보면 식파루는 지금은 없다(‘今無’)고 하였다.²⁹⁾

<그림 14> 엽서에는 “조선 동래군 동래심상고등소학교”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건물이 동래공립보통학교로 바뀐 객사의 일부다.³⁰⁾



<그림 14> 동래부 객사 엽서(봉래관 일부)

27) 『동아일보』 1923년 8월 13일(4면).

28) 송혜영·서치상, 「일제의 필지 분할에 의한 동래부 객사 공간의 해체 과정」 『건축역사연구』 22-3, 2013, 29~36쪽.

29) 문기주, 『동래군지』, 동래향교, 1937.

30) 부산광역시 동래구, 앞의 책, 36쪽에 동래공립보통학교로 바뀐 객사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Ⅳ.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진 관아 건물과 비 관련 엽서

1937년 발행된 『동래군지』 「누대정각」조를 보면, 망미루는 지금은 금강원에 옮겨져 있다(今移在金剛園), 「형승고적」조를 보면, 축성비(내주축성비)는 지금은 금강원에 옮겨 세워져 있다(今移立金剛)라고 하였다.³¹⁾ 이처럼 망미루, 내주축성비, 동래부 동헌 외대문 등이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졌다.



<그림 15> 금강원에 옮겨진 내주축성비, <그림 16> 금강원에 옮겨진 동래부 동헌
동래부 동헌 외대문 엽서 외대문 엽서

<그림 15> 엽서에는 “동래 온천 금강원 입구의 독진대아문과 비석”이라고 적혀 있다. 두 유물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 왼쪽에 있는 비가 내주축성비다. 읍성 남문 밖에 있던 <그림 3>의 내주축성비 앞의 건물들은 헐리고 비만 옮겨진 것이다. ‘동래독진대아문’이란 편액이 걸린 이 문은 2015년에 동래독진대아문에서 ‘동래부 동헌 외대문’으로 문화재(부산시 유형문화재 5호)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동래도호아문’ 편액이 걸려 있

31) 문기주, 앞의 책.

는 망미루가 동헌의 외삼문이고, ‘동래독진대아문’은 내삼문이란 글들이 올라와 있다. 망미루에 ‘동래도호아문’ 편액이 걸려 있으므로 망미루를 외삼문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래부 읍지인 『동래부지』(1740) 「관사(官舍)」조를 보면 동헌(충신당)의 대문은 3칸이며, 외대문은 3칸이고 1700년(숙종 26)에 중수되었다. 즉 동헌 외대문은 1740년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미루는 1742년(영조 18)에 세워진 문루다.³²⁾ 따라서 동헌 외대문과 망미루는 다른 건물이다.

앞서 언급한 『성역금각공해중수기』 「신건질」에는 ‘동헌 내삼문 3칸’이 기재되어 있다. 즉 1870년 동헌 개건 공사 때 내삼문(3칸)이 새로 만들어졌다.³³⁾ 1765년(영조 41) 변박(卞璞)이 쓴 ‘동래독진대아문’ 편액이 걸린 문이 내삼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망미루가 동헌 외삼문이고, ‘동래독진대아문’이 내삼문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망미루는 동헌 앞에 세운 문루이고, ‘동래독진대아문’은 ‘동래부 동헌 외대문’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5>, <그림 16> 엽서를 보면, 문 오른쪽에 ‘진변병마절제영’이란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 양쪽에 걸린 현판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2004년까지 꾸준히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필자가 역사·문화 전문 사이트인 코리아니티에서 옮기기 전 모습의 엽서를 찾으면서, 논란이 종결되었다.³⁴⁾

하지만 이 엽서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도 글씨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32) 『동래부읍지』(『여지도서』 수록, 1760년 경) 「누정」.

33) 김숙경, 『조선후기 동래부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학위논문, 2004, 27쪽.

34) 『부산일보』 2004년 7월 5일. 「동래독진대아문 현판 좌우 바뀌었다/ 현재 좌 ‘연향선위사’·우 ‘병마절제영’ 1910년대 일본 사진엽서 속엔 거꾸로」(김아영 기자). 2004년 이 엽서의 이미지 사진 공개를 허락해 주신 코리아니티 이돈수 대표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있는 자료는 이미 있었다. 이 엽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책에도 수록되어 있었다.³⁵⁾ 그리고 필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국 부산항 오카다(岡田)상점’에서 발행한 “한국 동래독진대아문”이란 비슷한 이미지의 엽서도 있다. 그리고 엽서뿐 아니라 비슷한 이미지의 다른 사진들도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7> 원래 위치의 동래부 동헌 외대문 엽서
(이돈수 소장)

금강원으로 이전되기 전 모습을 보면, 가운데 문에는 ‘신장상(神將像)’, 양쪽 문에는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동헌 앞에 있던 이 문이 해체되어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지면서, 현판 위치도 바뀌고 대문도 없어진 왜곡된 모습으로, 금강원 입구 장식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금강원은 1940년 동래읍에 기증되면서 금강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금강원으로 이전되었던 건물과 비석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래

35) 森田福太郎, 『釜山要覽』, 부산상업회의소, 1912, 앞 부분에 ‘동래독진대아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연고지로 돌아왔다.



<그림 18> 망미루 엽서1
(망미루 편역)



<그림 19> 망미루 엽서2
(동래도호아문 편역)

<그림 18>, <그림 19> 엽서는 동래 금강원 진입로 입구로 옮겨진 망미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망미루는 1742년에 동헌 앞에 건립된 문루로, 1869~1871년에 실시된 동래부 토목공사 기록인 『성역급각공해중수기』를 보면 6칸으로 중수되었다. 앞쪽에는 ‘동래도호아문’, 뒤쪽에는 ‘망미루’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이것은 두 엽서에서도 잘 볼 수 있다.



<그림 20> 망미루 엽서3

동래읍성 안에 있는 모습은 세키노의 책에서도 볼 수 있다.³⁶⁾ 문루의 아래쪽 3칸에는 각각 문이 있다.

<그림 20> 엽서는 금강원으로 이전되기 전 동래읍성 안에 있었던 망미루 모습이다. ‘동래도호아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주변에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다.³⁷⁾

<그림 21>은 앞에서 언급한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사진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래도호아문’ 편액이 걸린 문루, 특히 그 주변 건물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이며, 유일한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1> 동래부 동헌 앞 문루(동래도호아문 편액) 사진
(*CORÉE*에 수록)

망미루, 동래부 동헌 외대문(‘동래독진대아문’), 내주축성비 등 동래읍성 안팎에 있던 주요한 유적(유물)들이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진 것과

36) 關野貞 저·강봉진 역, 앞의 책, 446쪽 343도가 ‘동래도호아문’ 사진이다.

37)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동래부동헌 일괄 정비 종합계획 보고서』, 부산시 동래구, 2102, 70~71쪽.

관련해서는 다음 신문기사가 주목된다.

<자료 1>

제거된 동래 두 개의 누문(樓門), 금정산 금강원으로 옮기다. (전략) 이번 읍의 중심 십자로를 군청사 앞까지 직행시키는 관계 때문에 지장이 되는 건물의 제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동래독진대아문, 동래군한아문(東萊郡漢衙門, 동래도호아문)의 두 큰 누문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내정했던 모양으로, (중략) 문제의 2개 누문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라고 말하는데, 동래읍에서는 이것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사적 보존상에서도 유감이라고 말하므로, 군에서는 상당의 가격으로 양도받아 이것을 온천 위의 금정산 금강원에 재건하고 싶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략)³⁸⁾	
--	--

<자료 2>

동래의 명적 망미루, 금강원으로 옮기다.

동래읍에 고색 창연한 건물로서 옛날의 건축문화를 말해주는 망미루가 드디어 부산 동원가차랑(東原嘉次郎)씨의 손에 의해서 동래온천 금강원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현재 운반 중이다. 금강원에는 이미 군청의 정문이었던 호아문(護衙門, 동래도호아문)이 옮겨져 있고, 또 축성비도 이전 중으로 이것들이 금강원에 재건되는 날 금강원의 경승은 아주 뛰어난 것이 될 것이다.³⁹⁾

위 <자료 1>, <자료 2> 신문기사를 보면, 1930년대에 동래읍내 중심 십자로가 동래군 청사 앞까지 직행하기 때문에, 망미루와 동원 외대문

38) 『부산일보』 1932년 10월 29일(2면). 이것과 주 42) 신문 기사는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양홍숙 교수가 알려준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39) 『부산일보』 1933년 5월 15일(2면).

(‘동래독진대아문’)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래군에서는 두 누문을 돈을 받고 양도하여 금정산 금강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히가시바라 가지로(東原嘉次郎)의 개인 정원인 금강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⁰⁾

그래서 동헌 외대문(‘동래독진대아문’), 망미루, 내주축성비 등 동래 읍성 안팎에 있던 중요한 유물 등이 동래 금강원으로 옮겨진 것이다. 망미루는 1933년 6월 11일 상동식(상량식)을 하면서 금강원으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자리잡았다.⁴¹⁾ 그리고 동헌 외대문(‘동래독진대아문’)과 내주축성비는 금강원이 있는 산 중턱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들 신문기사를 보면 1932년 10월에서 1933년 6월 사이에 동헌 외대문(‘동래독진대아문’), 내주축성비, 망미루 순서로 옮겨졌다.⁴²⁾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엽서를 중심으로 자료소개를 하였다. 동래읍성의 남문은 세병문과 주조문이다. 주조문의 문루는 무우루다. 소개한 엽서의 상당수는 이 두 문과 관련된 엽서다. 세병문과 주조문이 함께 보이는 사진자료는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아서, 소개된 엽서가 유일하다. 주조문 출입구 양쪽에 ‘호표’와 ‘풍운’이란 글자가 적힌 모습도 현재까지는 엽서가 유일하다. 이들 엽서는 동래읍성이나 남문의 복원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세병문은 ‘파리 장식미술관’ 소

40) 서치상·송혜영, 『일제강점기 동래부 동헌 일곽의 해체 과정』 『건축역사연구』 23-4, 2014, 75~79쪽.

41) 『부산일보』 1933년 6월 12일(2면).

42) 『부산일보』 1933년 2월 26일(2면)을 보면, 당시 동헌 외대문(‘동래독진대아문’)은 이미 이전되었고, 내주축성비와 망미루는 이전될 예정이다.

장의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사진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1731년(영조 7) 동래읍성의 축성을 기념하는 기사비(記事碑, 축성비)인 내주축성비가 1735년(영조 11) 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다. 내주축성비 사진은 세키노 타다시의 『한국건축조사보고』(1904)에도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소개된 내주축성비 엽서는 이 책에 수록된 사진보다 주변 선정비의 존재 등 더 많은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래읍성 안의 원래 자리에 있던 ‘동래독진대아문’ 편액이 걸린 엽서는 교린연향선위사와 진변병마절제영이란 현판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었다. 2014년 동래부 동헌 외대문을 복원하면서 현판도 원래 위치대로 복원되었다.

동래읍성 안에 있는 동헌과 객사의 모습을 직접 담은 엽서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객사 정문 문루인 식파루와 관련된 엽서는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식파루와 그 옆에 있는 정원루가 동시에 보이는 사진은 소개된 엽서가 현재까지로는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동래부 동헌 밖의 문루인 망미루에는 ‘동래도호아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동래읍성 안에 있던 ‘동래도호아문’ 편액이 걸린 문루 사진은 지금까지 세키노 타다시의 『한국건축조사보고』에 수록된 사진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첩 *CORÉE*에 수록된 사진은 이 문루는 물론 연결된 주변 건물 모습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ORÉE*에 수록된 사진은 ‘동래도호아문’ 편액이 걸린 문루와 주변 건물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종류의 사진 모습을 담은 엽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으며, 소개한 엽서처럼 상당히 변화된 모습의 ‘동래도호아문’(망미루) 엽서만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일제시기에 동래부 객사는 동래공립보통학교로, 동헌은 동래군청으

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식파루는 학교 정문으로, 망미루는 군청 정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정원루는 군청 회의실로, 식파루는 그 후 동래간이 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동헌과 객사 주변은 동래부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일제시기에 동래지역 시가지의 중심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일제의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도로가 형성될 때, 도시개발에 방해되는 유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래읍성과 같은 큰 구조물은 대표적인 방해물이었다.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신작로를 만들었다. 허물어진 성벽은 또 다른 건축 자재로 활용되었다.

일제시기에 동래읍성 안은 일본인들에게도 중요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공간은 온정(온천)이 있는 새로운 공간인 온천장이었다. 동래 온천장에 일본인 온천탕, 여관, 별장 등이 들어섰다. 금정산 기슭에는 개인 정원인 금강원이 개발되었다.

도시개발로 없어질 동헌 주변 건물이나 유물에 대해서 동래군은 상당한 가격을 받고 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불하받은 대표적인 일본인이 금강원 주인 히가시바라 가지로다. 동래부 동헌 외대문이나 망미루가 금강원으로 옮겨진 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제시기 시가지 계획에 따라 또는 1930년 경이라고 하여,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소개한 신문자료를 보면 동래부 동헌 외대문(동래독진 대아문), 내주축성비, 망미루 순서로 1932년 10월에서 1933년 6월 사이에 금강원으로 옮겨졌다.

엽서만으로 역사적 정보를 알기에는 사료 한계가 명백하다. 관련 사진이나 문헌자료 등의 활용을 통한 상호 보완이 불가결하다. 최근 동래읍성이나 동래부 관아 건물과 관련된 사진·엽서·그림 등 새로운 자료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이 자료소개 글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좋은 자료가 발굴되고,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동래부지』(1740), 『동래부읍지』(1760년 경), 『성역급각공해중수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CORÉE(사진첩, 파리 장식미술관 소장)

2. 저서 및 논문

김계원, 「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고미술-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사업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4, 2021.

김기혁·김성희, 「조선-일제강점기 동래읍성 경관변화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7-4, 2002.

김기혁,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김동철, 「부산, 조선시대 국방·외교·무역의 중심지가 되다」, 『부산역사산책』, 부산광역시, 2020.

김숙경, 『조선후기 동래부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학위논문, 2004.

남옥 지음·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산산 바람을 가르다(日觀記)』, 소명출판, 2006.

문기주, 『동래군지』, 동래향교, 1937.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변천 150년사』, 2016.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 보고서』, 부산시 동래구, 2102.

서치상·송혜영, 「일제강점기 동래부 동헌 일곽의 해체 과정」 『건축역사연구』 23-4, 2014.

송혜영·서치상, 「일제의 필지 분할에 의한 동래부 객사 공간의 해체 과정」 『건축역사연구』 22-3, 2013.

송혜영, 『동래지역 읍·영·진성의 공간구조와 관아시설에 관한 연구』, 부산대 건축학과 공학박사 학위논문, 2017.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사학과 문학박사 학위논문, 2009.

윤용출,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 21, 2007.

윤용출, 『『성역급각공해중수기』 해제』 『향도부산』 24, 2008.

關野貞 저·강봉진 역, 『한국의 건축과 예술-북간 한국건축조사보고-』, 산업도서출판공사, 1990.

關野貞研究會 편,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2009.

森田福太郎, 『釜山要覽』, 부산상업회의소, 1912.

矢津昌永, 『朝鮮西伯利紀行』, 丸善, 1894.

池内宏, 『文祿慶長の役』(別編第一), 東洋文庫, 1936(吉川弘文館, 1987 復刊).